

<EDA 스토리라인>

1. 데이터에 대한 소개: 심리 데이터

1) 데이터의 구성: (총 몇 명, 여기에 분포 그래프 같이 넣어줘도 괜찮을 듯 그냥~)

- 성격 특성에 대한 질문 10가지(+BIG 5에 대한 설명)
- 마키아벨리 성향을 믿는 질문 20가지 + 응답시간(+마키아벨리에 대한 설명)
- 응답자의 특징: 연령, 교육수준, 형제자매수 등등
- 실존하는 단어와 허구인 단어 뜻을 아는지 묻는 질문

2) 데이터 활용 방안

우리의 심리 데이터 장점은 '응답자 개개인의 구체적인 특징'(종교, 유년기 거주지역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리 관련 설문 응답에 대한 전체적인 분포나 점수 자체도 볼 수 있지만, 구체적인 특징들에 기반한 성격 및 심리 분석이 가능하다.

2. 주제 선정 과정

2030, mz세대 특성처럼 연령대를 특정 지어 성격이나 심리 상태를 규정하는 기사나 이야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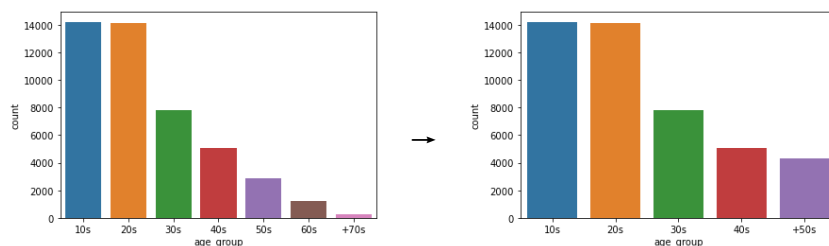
ex) 2030세대는 막연한 유행을 쫓는 것처럼 보이지만 '치밀하게 고민하고 똑똑하게 따져보고, 실행에 옮기는 세대'이자 '명확하고 분명한 답변을 추구하는 세대'다.

출처 : 인더스트리뉴스(<http://www.industrynews.co.kr>)

➔ 2030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성격 특성이 있을까?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의 통념과는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까?

➔ 연령대에 따라 성격특성이 다른지 확인 해보자!

*연령대 50대이상 하나로 묶음 Why?



<연령대에 따른 성격특성 변화>: 우리의 분석결과

*빨간색 글씨는 Big5 성향에 반대되는 질문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1)활발하고 열정적인	(2)따지기를 좋아하고 다투기를 잘하는	(3)믿음직스럽고 자기관리가 가능한	(4)불안하고 화를 잘 내는	(5)새로운 경험을 마다하지 않으며 여러가지로 생각해보는
△	○			
(6)내향적이고 조용한	(7)동정심이 많고 다정한	(8)계획적이지 않고 조심성 없는	(9)침착하고 기분이 안정된	(10)변화를 싫어하며 창의적이지 않은

위의 성격특성 중에 몇 개만 연령대에 따른 분포, 평균 그래프 제시.

ex) 활발한 성격특성은 연령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비판적인 성격은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 확실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론: 2030에서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성격은 찾을 수가 없었지만,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몇몇 심리 및 성격특성을 찾을 수 있었다.

➔ 왜 연령대에 따라 차이나는 성격특성이 있을까? 이유를 찾아보자!

나이에 따른 이와 같은 성격변화는 **유전적으로 정해진** 내재적 성숙이다.

여러 문화권에서 나이에 따른 성격5요인 변화가 유사하다는 점 등에서 성격5요인을 제시한 코스타와 맥클레이는 연령증가에 따른 성격변화는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성숙에 의한 발달적인 변화, 즉 선천적인 것이다

<우리의 main 주제>

연령에 대한 big5 성격특성 차이는 생물학적이고, 선천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하지만, 한국은 선천적인 특성보다는 노력이 더 중시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특히 후천적인 것이 강조된다. 정말 후천적인 영향으로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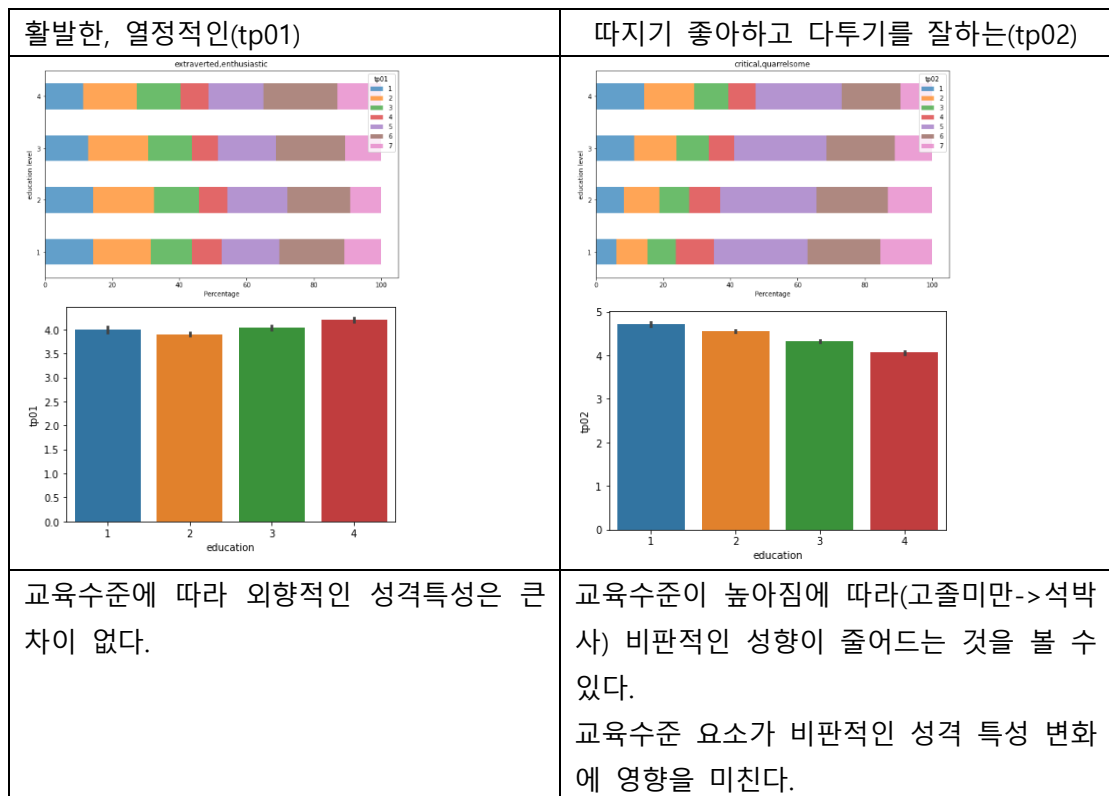
➔ 우리가 가진 설문조사에 여러 환경적 요인들이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3.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알아보기:

우리의 설문조사 중에 응답자의 환경적 요인이 성격특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분석해보았다. 각각 요소가 10가지 성격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 보았지만 몇 가지만 예시로 봐보자.

1) 교육수준이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예시: 교육수준이라는 환경적 요소는 활발한 성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따지기 좋아하는 성향에는 영향을 끼친다.



2) 가족구성원수가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3) 혼인상태가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4) 유년기 거주지역이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정리: 각각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는?**

	연령	교육수준	형제자매수	혼인상태	유년기 거주지역
tp01 외향적, 열정적	△	-	-	△	△
tp02 비판적, 싸우려드는	○	○	○	○	-

성격특성 중에 환경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도 있고 아닌 특성도 있다. 하지만 비교적 이런
이런 특성들은 좀 더 환경적으로 변화하기 쉬워보인다.

종합적으로 5개 유형 중에는 어떻다. 예를 들어 1번 6번 질문이 외향성에 대한 질문이니까 1번 6
번 질문을 보면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비슷하다. 외향성에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친화성보다는 외향성이 환경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더 적어보인다. 이런거!!

4. 결론

기존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자라나는 환경적 경험보다 선천적, 유전적 특성이 성인이 되었을 때 영향을 주는 정도가 강하다.

쌍둥이 연구:

일란성 쌍둥이- 유전자 동일. 입양--> 다른 환경에서 자라남. 이란성 쌍둥이는 유전자를 50%만 공유하고 그냥 같은 날 태어난 것 뿐, 특별하진 않음.

결과: 압도적으로 일란성 쌍둥이들이 같은 집안에서 자란 이란성 쌍둥이보다 모든 특성에서 유의미하게 비슷함.

하지만, 우리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는 성격특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을 찾을 수 있었다. 따라서 성격을 결정하는데 선천적인 부분이 크지만, **환경적 요인에 의해 변화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살면서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Big5 성격특성은 여러가지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 그것과 관련한 연구들이 많다.

- 취업/고용 상태: FRUYT, F. I. L. I. P., & MERVIELDE, I. V. A. N. (1999). **RIASEC types and big five traits as predictors of employment status and nature of employment.** Personnel Psychology, 52(3), 701–727. <https://doi.org/10.1111/j.1744-6570.1999.tb00177.x>
- 직업 적성 & 소득, 수입: Denissen, J. J., Bleidorn, W., Hennecke, M., Luhmann, M., Orth, U., specht, jule, & Zimmermann, J. (2017). **Uncovering the power of personality to shape income.** <https://doi.org/10.31219/osf.io/h7c6b>
- 승진 여부: Solomon, B. C., & Jackson, J. J. (2014). **The Long Reach of one's spouse.** Psychological Science, 25(12), 2189–2198. <https://doi.org/10.1177/0956797614551370>
- 이혼율 & 사회적 성취: Roberts, B. W., Kuncel, N. R., Shiner, R., Caspi, A., & Goldberg, L. R. (2007). **The power of personality: The comparative validity of personality traits, socioeconomic status, and cognitive ability for predicting important life outcomes.**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2(4), 313–345. <https://doi.org/10.1111/j.1745-6916.2007.00047.x>

5. 한계점

설문조사 응답자에게 한정된 이야기이다.

우리나라 자료가 아니다

우리가 차이가 있다 없다, 영향이 유의하냐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차이가 많이 보이면 영향을 어느정도 미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한계!